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학교 교수·한국박물관학회장

서울 인사동에 새로 둥지를 튼 제주갤러리에서는 ‘터닝포인트 2022 (6.8~7.5)’라는 주제로 두 개의 전시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주미술인을 청년작가(1부)와 중견작가(2부)로 나누어 선보이는 기획전이다.

한라미술인협회가 이번 전시를 주관하게 된 계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제주갤러리의 개관에 따른 것이지만, 단순히 특정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집단으로 선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하는가?

번 전시의 주제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사회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4차 산업혁명 혹은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테크놀로지 그리고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지배하고, 생태와 환경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격변의 시대다. 예술의 영역에서도 디지털 영상 이미지가 등장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NFT, 생태와 환경 그리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실험적 미술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예술의 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공간을 표상하는 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것은 인간 존재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번 ‘터닝포인트 2022-제주 청

년작가(6.8~6.21)’전에 출품한 10명의 작가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어난 소위 M(밀레니엄)세대의 작가들이다. 출품작들의 조형 방식은 각양각색이지만 창작 배경은 대략 두 갈래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디지털 정보사회를 사는 인간과 사물에 대한 물음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해있는 도시와 자연에 대한 성찰의 결실들이다.

중견작가들로 구성된 ‘터닝포인트 2022(6.22~7.5)’전은 한라미술인협회에 속한 제주미술인 31명의 작가들이 내놓은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20세기 후반 이후 작가들의 활동이 개인주의로 바뀌는 현실에서 단체전이 주는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이번 전시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술인들의 다양한 사유 방식과 표현의 성취를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 평화의 미명을 위해 잔혹한 테러와 전쟁이 자행되는 모순과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질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자신의 고유한 예술 언어로 표상하는 소명이 주어져 있다. 새로움의 출발은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이다. 인간과 자연과 사물이 독립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인터넷 미디어가 개인과 개인을 잇는 초연결사회 속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가 최선임을 직시하는 일이다. 이번 ‘터닝포인트 2022’전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예술가에 대해 성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열린마당

행복 제주 실현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박대진
서귀포시 대륜동 복지환경팀장

필자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보니, 불법 주정차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상식에 기초한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특히 서귀포시 대륜동은 혁신도시, 신시가지가 위치한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 다수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상업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을 종종 발견한다.

대부분의 업체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적법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몇

몇 업체는 도로의 가로등이나 가로수, 교통표지판 등에 불법 현수막을 서슴없이 게시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한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유동 광고물의 경우 예고 없이 강제 철거하고, 광고주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주거, 녹지지역 등과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시설물에 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야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중학생 노트북 제공 포퓰리즘 맞지만…”

취임식서 “다 안고 가겠다”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추경예산안에 총 161억원이 편성된 중학생 노트북 제공 등과 관련 “사실 포퓰리즘이 맞다”면서 “다만 어떤 교육적 효과를 노리느냐가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 컴퓨터가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고 발언.

또한 김 교육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제주도지사, 제주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들며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언급.

앞서 취임식에서는 “사람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점령군처럼 한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다 안고 가겠다, 다 가지고 가겠다, 다 함께하겠다”고 원고에 없던 내용의 취임사. 전선회기자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

○…서귀포시가 북상중인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일 시청 셋마당에서 한용 부시장 주재로 태풍 대비 긴급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 부서별 태풍 대비 사전조치 상황과 재난발생시 대처계획을 집중 논의.

시는 재난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통제가 필요한 지역은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출입 통제조치하는 한편, 농수축산 시설물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과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

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며 “지역 민간 중장비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 백규탁기자

사설

초심 잃지 않고 ‘빛나는 제주’ 만들어야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지난 1일 출범했다. 오 도정은 제주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취임식 장소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의외다. 탐라 개혁신화를 품고 있는 제주 역사의 중심적인 곳이다. 도정 슬로건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다.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빛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내고 있어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도민 모두의 소중함 삶이 더욱 더 빛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새로운 관점으로 현안을 풀고 미래를 재설계하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 보다 나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도

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진정한 도민대통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오 지사가 약속한 사항은 이번만이 아니다. 오 지사는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보다 강한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가뜰이나 오 도정의 출발은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오 도정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데다 고물가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경도음이 나올 정도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 도정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로서 미래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도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완연… 비상 대응을

당초 예상대로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바짝 다가선 조짐이다. 도내 확진자수가 수 개월만에 완만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데다 최근엔 하루 2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제주가 휴가철 관광객 폭주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람들 간 접촉 증가로 인한 결과로 재유행의 불가피성까지 나온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달 28일 169명, 29일 205명, 30일 184명으로 상승세다. 하루 확진자수 200명대는 지난달 4일 이후 25일만이다. 최근 일주일 총 확진자수도 843명을 기록, 하루 평균 120명인데다 전주보다 69명 늘었다. 일주일 단위 확진자수가 전주보다 늘어난 것이 석달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하루 200명대 확진자까지 나와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높였다 는 얘기다.

방역당국이 재유행 초기 대응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해야 할 때다. 최근 확산 추이가 여름철 활동량 증가, 면역력 감소, 해외 유입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등과 맞물려 재유행 도화선으로 작용하는 만큼 초기 ‘맞춤형 대응’을 필요로 한다. 휴가철 관광객 폭주와 피서객 특정장소 집중, 외국인 무사증 입국 재개 등 지역사회 인적 동향이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 초점이어야 한다. 거기다 도민 각자 마스크 착용, 장소 불문 거리두기, 밀폐 밀집 환경의 올바른 환기법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도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 제한 등 조치의 재시행 여부가 도민과 방역당국의 ‘하 기 나름’에 달린 엄중한 시기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순암(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7월 4일

아들 안귀환 며느리 이현미
경환 최미경
딸 안세연 사위 강남희
필숙 이원재
세나 강성규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서울2리 용암동길계 거문로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토지 급매 가격

-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에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 4) 강정동 해안도로 점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부
-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 7) 호근동 범섬 부,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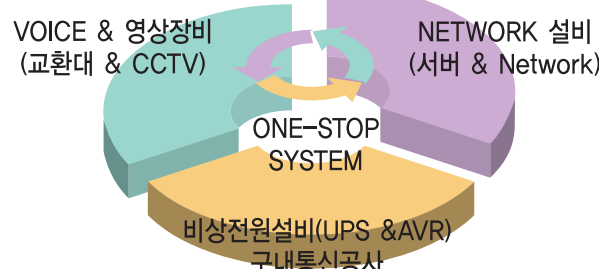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